

같이 보기

: 청주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가
협찬하는

청주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다녀오다

글 박진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초여름이었던 5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스포츠 행사들이 속속 열리기 시작했다. 충북산업보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1년 5월 청주시 배드민턴협회와 업무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청주시 배드민턴협회는 청주에서 규모가 큰 생활체육협의회 기관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해당 협약을 통하여 청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건강증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센터로부터 제공받고, 센터는 현혈, 교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청주시 배드민턴협회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협약 내용이 무색하게 지난 1년 동안 양 기관이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다행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고,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행사도 하나둘씩 재개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청주시 배드민턴협회로부터 청주시

협회장기 대규모 경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충북센터가 의료지원 및 센터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출동했다. 최숙형 건강진단팀장, 김유희 보건관리팀장, 이명준 환경위생팀장, 김미경 파트장이 의료지원에 나섰고, 사내기자인 필자 역시 의료현장 지원 및 취재를 위해 양일간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28, 29일 양일간 청주시 생활체육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스포츠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충북센터 의료지원팀도 2개 조로 나뉘어 양쪽 행사장으로 파견을 나갔다. 약 2년 만에 열린 대회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오랜만에 모인 생활체육클럽 선수들과 가족들은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몸도 풀면서 시합을 준비하였다. 청주시 배드민턴협회는 회원 수 약 5천여 명의 생활체육 단체로 이상미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센터 직원들도 여러 명이 소속되어 대회에 참가했다. 회사에서만 보던 직원들을 외부 대회에서 만나니 그 기쁨은 더욱 배가 되었다.

같이 보기

: 청주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15개 코트에서 나이별, 성별, 급수별 선수들이 빠르게 들어가서 게임을 진행했다. 승리에 기뻐하고 패배에 안타까워하는 승부의 세계 속에서 소속 클럽 및 가족들은 간식이며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는 등 대회 자체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였다. 우리 센터의 료지원팀도 준비해 간 손소독 티슈를 나눠주며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설명했고, 대회 이튿날 있을 헌혈 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바빠 움직였다.

배드민턴의 특성상 바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진행되었고 바람이 나오는 냉방기구들도 작동할 수 없어 대회장의 열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팀은 센터를 알리고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을 입은 채 열심히 돌아다니고 파스도 제공하면서 활약을 펼쳤다.



배드민턴은 활동량이나 움직임이 엄청난 운동으로, 선수들끼리 부딪칠 일은 없지만 부상에 대한 위험은 다른 운동경기만큼이나 크다. 운동 종목 중에서 공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최고 속도는 200km/h가 넘는 경우도 있는 배드민턴은 실제 경기에서 셔틀콕이 보이지 않는 수준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경기 중반쯤 선수 한 명이 발목이 심하게 돌아가는 부상을 당했다. 의료지원팀으로 참석한 최숙형 건강진단팀장이 구급상자를 들고 뛰어가 즉시 조치했다. 이러한 의료 처치와 상담하는 과정을 보면서 큰 대회일수록 의료지원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응원에 나섰다. 김철한 충북센터 센터장은 토, 일 이틀 모두 방문해 의료지원팀으로 파견된 직원들을 독려해주었고, 이튿날 진행된 헌혈캠페인에는 김용민 선임차장, 노태광 차장도 참석하여 헌혈도 하는 등 자리를 빛내주었다. 헌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긴 했으나 선수들 위주로 나온 둘째 날에는 격한 운동을 앞뒀을 뿐 아니라 운동 후 헌혈이 부담스러웠는지 헌혈 참여율이 저조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66 이러한 의료 처치와 상담하는 과정을 보면서 큰 대회일수록 의료지원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99

대회는 일요일 오후 4시경 큰 사고나 부상 없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비록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피로가 쌓였지만,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끝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올해에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센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지역사회 시민 및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에 발맞춰 대한산업보건협회도 정적인 틀을 깨고 좀 더 유동적이고 활기찬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로 녹아들어가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대한산업보건협회 그리고 충북센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

